

北間島地域 民族學校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金石柱**

A Geographical Study of Korean Ethnic Schools in Bukkando*

Jin, Shizhu**

요약 : 본 연구는 북간도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지리학적 차원에서의 연구로서 북간도 지역에서 민족교육운동의 핵심이었던 민족학교의 입지가 한인들의 독립운동 의지와 일본과 중국 정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촌이 집중된 곳에는 대부분 민족학교가 설립되어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양자 모두 용정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역으로부터 공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교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3.13운동 이전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학교의 비중이 높았으나 3.13운동 이후에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셋째, 민족학교는 일본과 중국 양측의 압박으로 인해 힘든 발전 과정을 겪었다.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는 민족학교가 많은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민족학교와 중국인 설립학교와의 관계는 3.13운동 이전에 양자의 집중지는 비슷하였지만 3.13운동 이후에 중국인 설립학교는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어 : 항일독립운동, 민족학교, 북간도, 3.13운동, 지리학, 자연환경, 인문환경

Abstract : This report studies what connections was between Ethnic education movement in Bukkando and natural and human knowledge environment as a way to complement total absence of studying Anti-Japanese Movement at the Geographic levels. The summary is as following : At first, the Korean villages, where almost all spread the national schools, so there was a very close relationship. Both from a Longjing as the central plain area to the proliferation of surrounding areas. Second, schools that was adjacent to trunk road we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connection with traffic. After that, however, it decreased gradually. Third, the national schools suffered the dual intervention from China and Japan, experienced a difficult development process. the schools which built by Japan were spreaded areas where concentrate the schools which built by Japan were spreaded areas where concentrated many national schools, both have a close relationship. before 3.13 movement, the distribution of schools that established by the Chinese mainly spreaded the areas concentrated national schools. But, after the 3.13 movement, it appeared a tendency to spread to the Korean people area where relatively dwelled a few people.

Key Words : Anti-Japanese Movement, Korean Ethnic Schools, Bukkando, 3.13 movement, geography, nature environment, human environment

1.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만주지역, 특히 북간도¹⁾에서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은 국난 극복의 귀중한 역사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간도 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역사학(박창욱, 1991, 신주백, 1999 등), 정치학(임영서, 1993

등), 사회학(김춘선, 2001, 손춘일, 1998 등)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화(심혜숙, 1994), 민족(김성보, 1990 등), 정체성(이현정, 2001 등), 촌락주민과 항일독립운동(송우혜, 1995 등), 여성주의(박혜란, 1994 등), 경제(권혁수, 1993 등), 식생활과 보건위생(장세운, 2004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인 관점(지형, 하천유역과 같은 자연환경과 한인촌, 교통 등과 같은 인문환경)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이해 혹은 해석 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간도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이 이 지역의 지리적 요소들과도 밀접한 관계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년도 해외한국학지원사업(학술연구)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07-R-50).

** 延邊大學校 地理學科 副教授(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jinsz@hanmail.net)

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북간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항일독립운동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민족교육운동에 대해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시각화 작업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화를 통한 시각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리학적인 차원에서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관련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교육과 보존적 가치도 매우 크다.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헌자료들에서 제시한 민족학교를 수집·정리하고 이들 민족학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민족학교의 분포와 입지특성을 자연환경, 한인촌의 분포, 중국과 일본의 영향, 교통과의 관계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는 기존에 연구된 만주지역에서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물을 국·내외별로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리학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중국에서 출판된 각 현·시 지명지와 지지 및 기타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본 지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지도는 다음과 같다.

- (1) 1970년대 연변지역과 통화·백산지역의 1:50,000과 1:200,000 지형도.
- (2) 다양한 문헌에서 제시된 당시의 지도.
- (3) 현재 중국에서 출판된 연변지역의 행정구역도.

이상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헌연구와 각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과거 민족학교와 중국인 및 일본인 설립학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주제도를 제작하여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항일독립운동의 범주는 민족학교²⁾로 정하였다. 당시 북간도지역 민족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권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에 일환으로 교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 등을 일깨우는

것이였다(중국조선족교육사편찬조편, 1991, 49~50). 이와 같은 교육목적은 근대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일제의 통치를 뼈저리게 증오해 온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철저히 수행되였다. 따라서 민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을 분석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민족교육의 산실이었던 민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문헌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북간도 지역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민족학교를 교육기관 즉, 한인 사립학교와 종교계통학교를 수집·정리하고 소재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설립학교³⁾에 대해서도 소재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항일독립운동 관련 문헌, 당시 지도, 1:200,000과 1:50,000 지형도, 현재 지도, 연변 지역 각 시와 현의 지명지 등을 이용하였고 전문가 면담도 진행하였다.

셋째, 연변지역의 1:20만 지형도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그린 다음, 한인 이주, 한인촌, 해발고도, 하천유역, 중국과 일본의 영향, 교통 등을 바탕으로 여러 계열의 학교 분포도를 그렸다.

넷째, 이상의 지도와 여러 가지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포도에 나타난 입지 원인을 자연과 인문적인 요인 및 역사적 사실들과 연관시켜 지리학적인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프로그램은 Arc GIS 9.2와 Photoshop 7.0.1 등이다.

3) 연구범위와 시기구분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에 만주로 망명한 다양한 계보의 항일민족운동자들은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하여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을 지상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민족운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은 한인 자제들의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민족주의 교육이였다(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66). 만주지역에서 민족주의 교육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북간도지역이였다. 이 지역은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뿐 아니라

이미 수 백 개에 달하는 한인촌이 형성되어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북간도(현재의 연변지역 중심)지역으로 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족교육 운동의 서막을 연 서전서숙(瑞甸書塾)이 설립된 1906년부터 1931년 9.18사변 이전까지이다. 이와 같은 시간적 범위를 정한 이유는 9.18사변 이후에는 민족학교들이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기 때문이다(鳴田道彌, 1935, 415).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3.13항일독립시위 운동(이하 3.13운동으로 약칭)을 계기로 그 성격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3운동 이전은 실력양성을 위한 민족교육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3.13운동 이후는 민족교육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무장독립의 항일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06년부터 3.13운동이 발생한 1919년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1919년부터 만주국 설립 전인 1931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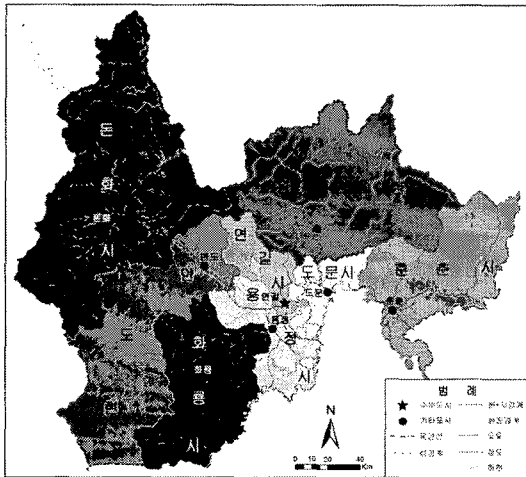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행정구역

2. 한인의 이주와 민족교육운동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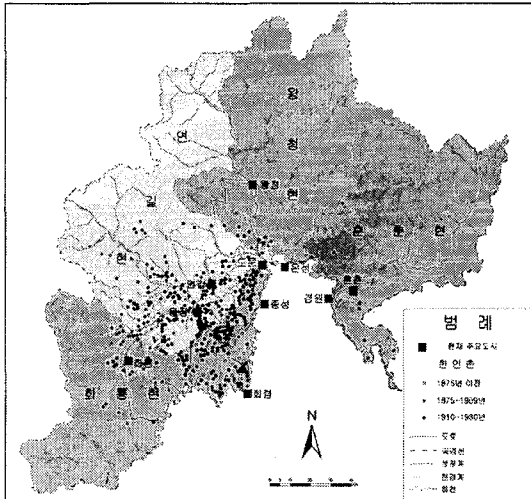
1) 한인의 이주

한인들이 북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한 계기는 한반도 서북지방을 휩쓸었던 기사년(1869년) 대기근이었다. 당시 학정과 기아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북

간도를 기름진 땅과 풍부한 식량 이외에도 연료용과 가옥 건축용 목재가 풍부한 풍요의 땅으로 인식하면서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월강죄”를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인촌은 주로 두만강 중류와 해란강의 지류인 육도하(六道河)연안에 분포되었다. 1885년 청국은 정식으로 “봉금령”을 폐지하고 두만강 연안의 화룡읍(和龍峪: 현재의 용정시(龍井市) 지신진(智信鎭) 대립자촌(大粒子村)임), 광재읍(廣霽峪: 현재의 용정시 개산둔진(開山屯鎭) 광소촌(廣昭村)임), 서보강(西步江: 현재의 훈춘시(琿春市) 삼가자향(三家子鄉) 고성촌(古城村)임)에 월간국(越墾局)을 설치한 후, 두만강 중류 이북의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지역을 “한민전간지구(韓民專墾地區)”로 지정하고 이주 한인의 자유로운 개간을 허용하면서 한인 이주가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00년대 초에 이르러 한인의 분포 중심이 부르하통하, 해란강, 가야하 등 하류평야지역으로 이동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에 의해 『을사보호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파산한 농민들의 간도로의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광복과 국권을 회복하려는 반일인사들과 민족독립운동가들의 집단이주도 활발해졌다(박주신, 2000, 40~41). 여기에 1909년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 이후, 한인들의 거주권과 토지 및 가옥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이들의 북간도 이주는 더욱 보편화되었다(김태국, 2001, 16). 한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세계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의 인상으로 만주의 관리와 지주들이 벼농사에 능한 한인을 모집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1915년 일제가 중국의 동북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북양정부⁴⁾를 강압하여 『21개 조항』을 체결한 후, 동북지역의 토지를 약탈하고 한인을 고용하여 논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한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세계 시장의 쌀값이 상승하자 중국의 지주와 관료, 일본의 동양척식회사, 동아권업주식회사 등 독점 자본가들이 동북지역의 농산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토지를 점령하고 인력 확충을 위해 중국 내륙의 한족과 한반도의 한인들을 이주시켜 토지를 개간하게 하였다(조선족략사편찬조, 1986, 33~34). 그리하여 동북지역, 특히 북간

도지역으로의 한인 이주자가 폭증하였다. 1930년대까지 새롭게 설립된 한인촌은 여전히 해랑강과 부르하통하 연안에 집중되었으며 그 주변지역으로도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2).



주: 심혜숙, 1992, 조선족의 연변이주와 그 분포특성에 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제4호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2. 1851~1930년간 북한도 지역의 한인촌 분포

2) 민족교육의 발전

한인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만주지역에는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교육을 중요시한 한인들은 이국 타향에서도 서당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1905년 11월에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수많은 민족선각자들이 일제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하여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반일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한반도의 사회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됨에 따라 한반도는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제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많은 선각자들은 국권회복을 위해 한반도에서 반일애국민족교육운동과 대중계몽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박문일, 1993, 286). 한반도에서의 반일민족교육운동은 필연적으로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한반도에서 일제의 통치가 본격화 하자 많은 선각자들은 만주를 반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사립학교와 종교계통의 민족학교를 설립하거나 많은 반일단체를 결성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전력하였다.

이 지역 민족교육운동의 효시는 이상설(李相高)의 주도하에 1906년 10월 연길현 용정촌에 설립된 서전서숙(瑞甸書塾)이다. 서전서숙 옛터는 현재 용정시 실험소학교에 위치해 있다. 이상설이 용정을 서숙의 설립지로 선택한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한 한반도와 거리가 가까워 북간도, 남·북만주, 시베리아 지방의 이주 한인들에게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가 용이함은 물론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기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박주신, 2000, 270). 이상설 등은 친히 한인마을들을 방문하여 신학의 좋은 점과 자제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22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개숙(開塾)하였다. 서전서숙은 개숙한 그날부터 반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 1. 북한도에 설립된 민족학교와 한인 인구

단위: (개, %, 명)

민족학교	시 기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합 계
설립된 학교	3.13운동 이전	97(47.1)	77(37.4)	11(5.3)	21(10.2)	206(100.0)
	3.13운동 이후	137(51.3)	41(15.3)	46(17.2)	43(16.1)	267(100.0)
합 계		234(49.4)	118(25.0)	57(12.1)	64(13.5)	473(100.0)
위치가 파악된 학교	3.13운동 이전	65(40.8)	64(40.2)	11(6.9)	19(11.9)	159(100.0)
	3.13운동 이후	110(51.5)	35(16.3)	34(15.9)	35(16.3)	214(100.0)
합 계		175(46.9)	98(26.3)	36(9.7)	53(14.2)	373(100.0)
1930년 한인 인구		195,242(49.5)	111,452(28.3)	38,074(9.6)	49,452(12.5)	394,220(100.0)

자료: 부록 1 참조, 1930년 인구는 현규환, 한국유이민사(상권), 일조각, 1967을 참조하였음.

주: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은 당시의 행정구역명임.

통감부간도파출소는 서숙을 감시하고 탄압하여 1907년 9월경에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서전서숙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오래 존속되지는 못하였지만 반일민족교육의 요람이었으며 반일투사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최홍빈, 1996, 34). 이를 계기로 북간도에는 양정학교(養正學校), 창동학원(昌東學院), 명동학교(正東學校), 광성학교(光成學校), 정동학교(正東學校), 영신학교(永新學校), 창동학교(彰東學校), 대전학교(大甸學校), 북일학교(北一學校) 같은 대표적인 민족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의 설립은 북간도지역은 물론 만주지역 전체에서 반일민족교육을 크게 고취시켰다. 이상의 학교 설립을 계기로 9.18사변 이전까지 두만강 이북지역에 설립된 민족학교는 총 473개에 달하였다⁵⁾. 그 중 연길현(延吉縣)에 234개, 화룡현(和龍縣)에 118개, 왕청현(汪淸縣)에 57개, 훈춘현에 64개였다(표 1).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간도지역의 민족학교는 일차적으로 연길현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화룡현이고 나머지는 왕청현과 훈춘현의 순이다. 이와 같은 분포양상은 당시 한인의 분포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3.13운동 이전에는 한인이 많이 집중된 연길현과 화룡현에 설립된 학교가 많았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한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왕청현과 훈춘현에도 비교적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이는 왕청현과 훈춘현에 한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3.13운동 이후 화룡현에만 민족학교의 설립이

그 이전보다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인이 초기에 화룡현으로 이주하였다가 후기에 와서 화룡현을 경유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한인촌과 민족학교와의 관계

한인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북간도 지역에는 많은 한인촌이 형성되었다. 한인촌의 형성은 민족학교의 분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인촌이 형성된 곳에는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지역에 민족학교가 들어섰다(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이러한 상황은 2세 교육을 남달리 중시하였던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주 한인들이 한곳에 정착하여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2세 교육이었다.

3.13운동 이전의 민족학교는 당시 한인이 집중된 용정촌을 중심으로 한 내륙의 평야지역에 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민족학교가 점차 그 주변지역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인촌이 입지한 촌락의 해발고도와 유역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통하여 민족학교의 입지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해발고도에 따른 민족학교의 분포

북간도 지역 민족학교의 분포는 해발고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표 2에서와 같이 3.13운동 이전의 민족학교는 해발고도 200m미만의 지역에 51개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위치가 파악된 전체 학교 수의 32.1%를 점하고, 200~500m 사이의 지역에 99개, 500~1,000m 사이의 지역에 9개가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민족학교는 200~500m 사이에 62.3%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지역에는 32.1%로서 낮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밀도는 1,000km² 당 30.2개로서 200~500m 지역의 9.3개보다 훨씬 높다.

3.13운동 이후 민족학교의 고도에 따른 분포도 이전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지역에 분포된 학교 수가 전체 학교에서 점하는 비중은 3.13운동 이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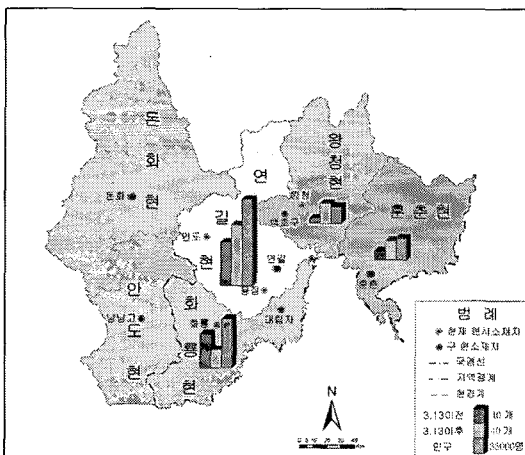


그림 3. 9.18사변 이전 북간도지역의 민족학교와 인구 분포도

표 2. 북간도 지역의 해발고도에 따른 민족학교 분포 단위: (개, km², %, 개/1,000 km²)

고도	시기	0~200m	200~500m	500~1,000m	1,000~2,000m	2,000m이상	합계
3.13운동 이전	개수(비중)	51(32.1)	99(62.3)	9(0.6)	-	-	159(100.0)
	밀도	30.2	9.3	0.34	-	-	3.7
3.13운동 이후	개수(비중)	47(22.0)	152(71.0)	15(7.0)	-	-	214(100.0)
	밀도	27.9	14.3	0.56	-	-	4.9
합계	개수(비중)	98(26.3)	251(67.3)	24(6.4)	-	-	373(100.0)
	밀도	58.1	23.6	0.91	-	-	8.6
면적		1,686(3.9)	10,649(24.6)	26,363(61.0)	4,508(10.4)	28(0.1)	43,234(100.0)

즉,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지역에 분포된 민족학교 비중은 32.1%에서 22.0%로 감소되었고 200~500m사이의 지역에 분포된 민족학교 비중은 62.3%에서 71.0%로 증가되었으며, 500~1000m 사이의 지역에 분포된 민족학교의 비중은 0.6%에서 7.0%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독립운동의 성격이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3.13운동 이전까지는 교육을 통해 민족역량을 축적한 항일 민족교육운동의 준비기라고 본다면, 그 이후부터 9.18사변까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축적된 민족의 역량이 무장독립운동으로 발전된 항일무장투쟁의 실천기로 볼 수 있는데(박주신, 2000), 이와 같은 독립운동 특징의 변화는 민족 선각자들이 방일독립운동 기지를 당시 북간도지역의 중심지인 용정과 연길의 주변뿐만 아니라 일제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곽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발고

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까지 민족교육을 확대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인촌의 분포 범위도 더욱 넓어져 민족교육기관의 분포도 지세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유역에 따른 민족학교의 분포

하천은 인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연요건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그 이유는 인류는 하천에서 물, 고기, 사금 등의 채취가 용이하며 하천을 수송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주성, 1991). 북간도지역의 주요한 하천은 두만강,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 해란강(海蘭江), 가야하(嘎呀河), 수분하(綏芬河), 목단강(牡丹江), 송화강(松花江) 등으로 북간도지역은 목단강유역, 송화강유역, 수분하유역, 두만강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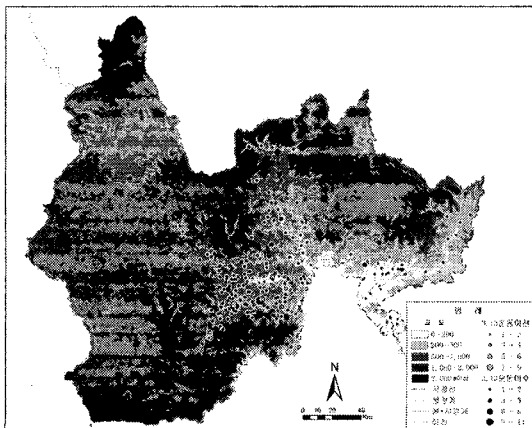


그림 4. 3.13운동 전·후 북간도지역의 민족학교 해발고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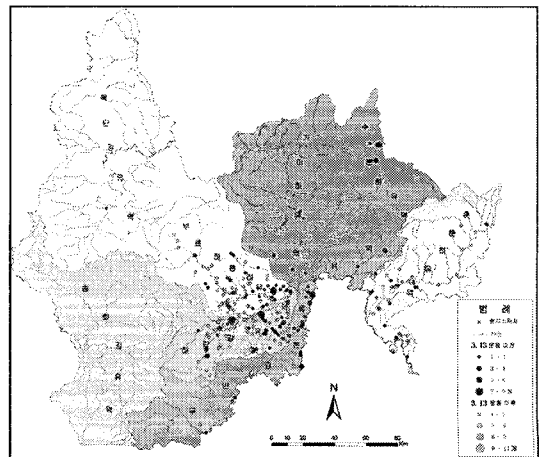


그림 5. 북간도지역의 유역에 따른 민족학교 분포도

표 3. 북간도지역의 하천유역에 따른 민족학교 분포

단위: (개, %)

유역	시기	목단강 유역	송화강 유역	수분하 유역	두만강유역					합 계
					가야하 유역	부르하통하 유역	해란강 유역	훈춘하 유역	두만강본류 유역	
3.13운동 이전	-	-	-	10(6.3)	5(3.1)	31(19.5)	62(39.1)	12(7.5)	39(24.5)	159(100.0)
3.13운동 이후	-	-	-	4(1.9)	41(19.1)	52(24.3)	69(32.3)	28(13.1)	20(9.3)	214(100.0)

는 민족학교의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만강유역을 다시 가야하유역, 부르하통하유역, 해란강유역, 훈춘하유역, 두만강 본류유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5).

1919년 3.13운동 이전에 민족학교가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해란강 유역으로서 전체 학교 수의 39.1%를 점하였다. 게다가 해란강유역은 인구 또한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서 당시 북간도지역 한인의 최대 집중지였다(김춘선, 2001). 해란강은 북간도의 한인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은 해란강을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어머니 강”으로 부르고 있다.

다음으로는 두만강본류 유역으로서 위치가 파악된 전체 학교 수의 24.5%를 점하였다. 이 시기에 민족학교는 주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해란강유역에는 여전히 전체 학교 수의 32.3% 분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지만 두 번째로 많은 유역은 두만강본류 유역에서 부르하통하유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야하 유역과 훈춘하 유역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경과 가까운 두만강본류 유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민족학교의 분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통의 발전과 민족학교 입지

1931년 9.18사변 이전, 북간도지역의 교통은 도로, 철도, 수상운수 등 교통수단이 이용되었으나 당시 북간도 지역에는 철도가 매우 적게 부설되었고⁶⁾ 수상운수도 이용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간도지역의 근대 교통운수업은 ‘봉금령’이 해제된 후, 한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일제의 침략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발전되었다. 도로의 발달은 1870년대 중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20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옛길을 정비하였으며 일부 새로운 도로도 건설하였다. 1875년에 청조 변무독판(邊務督辦) 吳大澄(오대정)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훈춘으로부터 의란(依蘭), 연길, 명월구(明月溝: 현재의 안도(安圖)임)를 지나 돈화에 이르는 도로를 정비하였다. 1908년에는 연길-용정, 용정-삼도구(三道溝)(현재의 화룡임), 연길-영안(寧安) 등의 도로들을, 이후에는 두만강 연안의 도문(圖門)-개산둔, 용정(龍井)-계사처(稽查處: 현재의 삼합(三合)임), 훈춘-영안 등의 도로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북간도지역의 초보적인 도로망이 형성되었다. 20세기 초부터 9.18사변 이전까지는 기존 도로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

표 4. 북간도지역의 간선도로 완충구에 따른 학교분포

단위: (개, %)

학 교	시 기	간선도로부터의 거리			전체학교수
		1km이내	2km이내	4km이내	
민족학교	3.13운동 이전	78(49.1)	101(63.5)	116(73.0)	159(100.0)
	3.13운동 이후	69(32.2)	90(42.0)	133(62.1)	214(100.0)
중국인 설립학교	3.13운동 이전	40(51.9)	48(62.3)	59(76.6)	77(100.0)
	3.13운동 이후	30(30.3)	39(39.4)	61(61.6)	99(100.0)
일본인 설립학교	3.13운동 이전	23(62.1)	24(64.7)	25(67.6)	37(100.0)
	3.13운동 이후	11(39.3)	13(46.4)	16(57.1)	28(100.0)

하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외부와의 경제적 연계가 빈번해 짐에 따라 기존의 도로를 보수하여 연길을 중심으로 한 연결-돈화, 연결-용정, 연결-화룡 등 세 갈래 주요 간선도로가 확장되었다. 이외에 100 km에 달하는 명월구에서 낭낭고(娘娘庫: 현재의 안도현 송강진(松江鎭)임)도로를 새로 건설하였다(전송립, 1991, 357).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북간도지역의 도로건설 상황은 3.13운동 이전과 이후 시기는 주요 간선 도로망에 있어 기존의 도로를 보수하였을 뿐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학교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완충구(Buffer)⁷⁾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당시 북간도 지역의 주요 도로를 선택하여 도보로 활동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범위, 즉 도로에서 1 km, 2km, 4km 범위에 분포된 학교 수를 조사하여 설립한 학교들과 도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13운동 이전에는 73%의 민족학교가 주요 간선 도로에서 4km 이내에 입지하여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62.1%로서 약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민족학교의 분포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3.13운동 이후, 평화적인 독립투쟁이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대규모 항일무장독립운동으로 전환되었다(송우혜, 1988). 그리하여 북간도와 서간도를 비롯한 만주지방에서는 많은 무장독립운동단체들이 조직·결성되었고, 민족교육운동도 무장투쟁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1920년을 전후하여 민족학교들에 사회주의 혁명사조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영향으로 민족교육운동은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박주신, 2000, 370~371). 이와 같은 항일독립운동의 성격 변화로 민족학교들은 일제의 탄압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곽지역을 이동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인 설립학교는 3.13운동 이전에 62.1%의 학교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1km 이내의 지역에 입지하여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제가 초기에 용정, 연결, 두도구(頭道溝), 훈춘과 같은 주요 도시들에 영사관과 영사분관과 같은 통치기구를 설치하였고 따라서, 일본인 설립 학교도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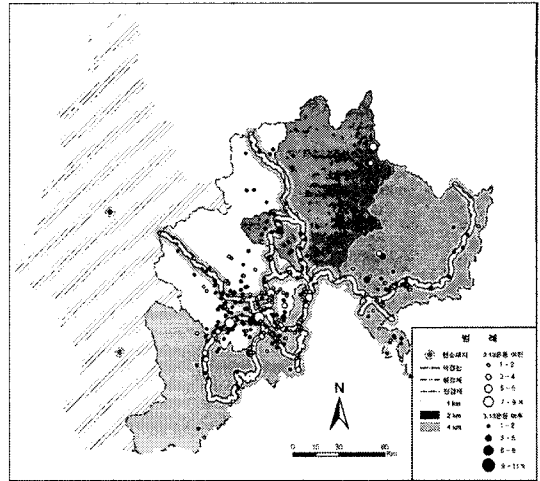


그림 6. 북간도지역 민족학교의 완충구 분포도

이 도시에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도로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세력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학교를 입지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중국인 설립학교도 민족학교나 일본인 설립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중국과 일본의 영향에 따른 민족학교의 입지

1) 중국과 일본의 영향

북간도지역의 민족학교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각축전을 벌리면서 민족학교는 갖은 압박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일본은 만주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인 이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1907년 한인이 다수를 점하는 용정촌에 조선총독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한인들의 민족주의적이고 항일주의적인 교육 내용을 친일적으로 돌리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효가 1907년 9월 일본에 의한 서전서숙의 폐쇄(閉塾)이다. 그러나 일본의 민족학교에 대한 압력은 초기에는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인의 간도 한인 민족교육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박주신(2000, 71~72)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 간도를 비롯한 만주지방은 일제의 직접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 관계로 간도 한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다만 매수와 권유 또는 간접적인 압력으로 민족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간섭하거나 한국인 회유를 통한 친일교육을 추진하는 정도였다. 또한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을 전후하여 1915년에 체결된 『21개 조항』 전까지는 간도에 배일운동이 점고하고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이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것은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으로 간도 한국인을 중국인이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일본 관헌이 한국인을 집적 취재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당시에는 아직 중·일간의 대립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로서, 일제는 만주에서의 제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대중국정책이 191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제의 한국인 간섭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한국인의 민족교육은 별다른 탄압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국도 1915년 전까지만 해도 간도 한인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별다른 통제와 간섭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 박주신(2000, 75)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 간도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의 간도 거주는 중국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인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망명·이주한 민족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정하면서 한국인들이 조국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해 줄 정도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중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민족동화정책을 추진할 만큼의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15년 중·일간에 일본이 중국 내에서의 특권을 요구한 『21개 조항』이 체결되면서 만주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대립⁸⁾이 본격화되자 양국은 한인의 교육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일본은 한인 사립학교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

움을 틈타 매수와 회유공작을 통해 친일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박주신, 2000, 95~99). 한편 중국은 『21개 조항』의 체결로 일본의 한인 교육에 대한 간섭과 세력 확장을 우려하여 동년 6월에 한인의 교육을 중국 학제에 통일시키고자 『확일간민교육판법(劃一墾民教育辦法)』을 통과시킴으로써(현규환, 1967, 434) 한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정부는 한인들이 사립학교와 종교계학교의 설립 시에는 『확일간민교육판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할 시에는 강제로 폐교조치를 단행하였다(김성준, 1969, 59). 이같은 조치에 대해 초기에는 민족학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중국의 교육법을 따르게 되었다(박주신, 2000, 125). 이같은 이유로 1915년 이후 새로 설립된 민족학교수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학교수는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비록 3.1운동 이후, 일제의 한인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36개의 민족학교가 일제에 의해 소멸되었지만(사료편찬위원회, 2001, 1094~1095) 일제의 탄압은 오히려 한인들의 반발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족학교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끌었다(박문일, 1993, 296). 게다가 3.1운동을 계기로 좀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해야겠다는 필요성과 기대가 고양됨에 따라(사료편찬위원회, 2001, 832). 따라서 민족학교는 다시 급증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종교계통의 민족학교 설립이 돋보이는데 주요한 학교는 은진(恩眞)중학교, 동흥(東興)중학교, 대성(大成)중학교 등이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발발한 뒤,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李鳳熙, 1992, 201~205)하면서 1920년대 초부터 간도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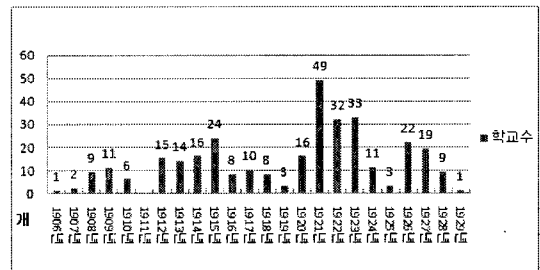


그림 6. 북간도지역 민족학교 설립상황

을 중심으로 한 남만과 북만 한인사회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전파되어 반종교 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종교계통의 민족학교는 거의 소실되었다.

2) 일본인과 중국인 설립학교와 민족학교와의 관계

일본은 북간도지역의 이주 한인들에게 식민지 교육정책을 자행하여 한인 청소년들을 일본인화시키려고(延邊大學教育學心理學敎研室·延邊敎育研究所敎育史研究室, 1987)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설립하거나 한인이 설립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북간도지역에서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았다. 일본인이 처음으로 설립한 학교는 1908년 7월에 용정촌

대륙정책과 관련시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본은 만주지역에 진출한 일본인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주하여 만주 곳곳에 한인사회를 형성한 한인들을 저들의 대륙정책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이주 한인들을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간주하면서 한인들에 대한 “보호자”로 자처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한인사회에서의 친일세력 부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친일세력의 부식 정책은 우선 친일교육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인 분포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한인들이 설립한 서당이나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민족 교육을 잠식하게 되었

표 4. 북간도지역의 여러 소속 학교 분포상황

단위: (개, %)

학 교	시 기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합 계
민족학교	3.13운동 이전	97(47.1)	77(37.4)	11(5.3)	21(10.2)	206(100.0)
	3.13운동 이후	137(51.3)	41(15.3)	46(17.2)	43(16.1)	267(100.0)
합 계		234(49.4)	118(25.0)	57(12.1)	64(13.5)	473(100.0)
일본인설립학교	3.13운동 이전	19(45.2)	18(42.9)	3(7.1)	2(4.8)	42(100.0)
	3.13운동 이후	11(34.4)	11(34.4)	1(3.1)	9(28.1)	32(100.0)
합 계		30(45.6)	29(34.3)	4(8.6)	11(11.4)	74(100.0)
중국인설립학교	3.13운동 이전	42(49.4)	23(27.1)	7(8.2)	13(15.3)	85(100.0)
	3.13운동 이후	24(18.5)	29(22.3)	41(31.5)	36(27.7)	130(100.0)
합 계		66(30.7)	52(24.2)	48(22.3)	49(22.7)	215(100.0)

의 서전서숙 자리에 설립된 간도보통학교이다. 그 후 1916년, 1917년, 1918년에 차례로 영사분관이 설치된 두도구, 백초구, 훈춘 등지에도 조선총독부지원 학교가 설립되었다(桑畑忍, 1929). 당시 일본인 설립학교들은 주로 일제의 세력이 미치는 일본영사관이 위치한 주변과 남만철도 부속지 내에 설립되었다(박주신, 2000). 북간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표 4, 그림 7). 그러나 3.13운동 이후 일제의 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본인 설립학교의 분포도 확산되었는데 그 중 훈춘현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상기 분석을 통하여 민족학교와 일본인 설립학교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제국주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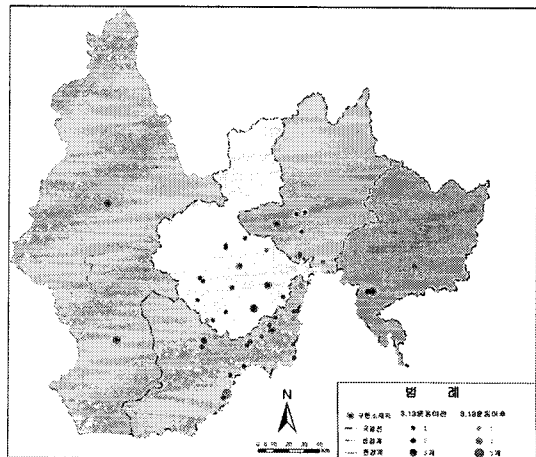


그림 7. 북간도 지역 일본인 설립학교 분포도

다(김태국, 2001).

반면, 중국은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대항하여 이주 한인을 귀화시킴으로써 일제의 한인 간섭을 불식시키려는 동화책을 전개하였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에 현립학교를 설립하고 한인 자제들을 입학시켜 중국의 교육제도에 맞추어 교육시키는 한편, 한인이 세운 사립학교를 중국학교로 개편할 것을 강요하였다(박주신, 2000). 중국 측에서는 1904년에 처음으로 연길에 관립북산중학당(官立北山中學堂)을(龍井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89, 492), 후에 광제육과 훈춘 등지에 육속 학교를 설립하였다. 1911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북간도 지역에 중국인이 설립한 학교는 12개에 달하였고(龍井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89, 484), 이후에도 중국 측에서 설립한 학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중국인이 북간도지역에 설립한 학교는 3.13운동 이전과 이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13운동 이전에는 연길현과 화룡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왕청현과 훈춘현에는 오히려 적게 분포하였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중국인 설립학교들에서 한인자제들을 수용하여 한족과 공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현규환, 1967)이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반대로 왕청현과 훈춘현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표 4). 이는 당시 많은 한인 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중국인 설립학교는 중국인이 많은 왕청현과 훈춘현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이 서로 한인에 대한 교육권을 쟁탈하면서 일본인 설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왕청현과 훈춘현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3.13운동 이후에 설립된 학교 수가 85개에서 130개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1915년 중국과 『21개 조항』을 체결하고 북간도 한인보호를 구실로 만주 진출을 적극화 하자, 일제의 침략에 위협을 강하게 느낀 중국이 그해 5월에 『획일간민교육판법』을 제정하여 한인 교육기관을 그들의 세력권 내에 두고자(박주신, 2000, 74) 적지 않은 한인 학교들을 중국의 학제 하에 통일(현규환, 1967, 438)시켰기 때문이다.

3.13운동 이전 북간도지역 중국인 설립학교의 주요 분포 범위는 용정과 연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민족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1919년 3.13운동 이후 북간도지역 중국인 설립학교의 주요 분포범위는 한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길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왕청현의 서남부 및 훈춘현의 서부지역이다(표 4, 그림 8).

이를 통해 3.13운동 이전 북간도지역에서의 민족학교와 중국인 설립학교의 분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3.13운동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3.13운동 이후 중국은 일본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한인 교육에 있어 일본과 갈등이 심해지자 한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중국인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지리학적인 시각에서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북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의 범주는 매우 넓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일독립운동 중 항일성향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민족학교를 대상으로 자연적 요인(지형과 하천유역)과 인문적 요인(한인촌, 중국과 일본의 영향, 교통)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을 위하여 먼저 연변지역의 1:20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하여 북간도지역에 설립되었던 민족학교, 중국인 설립학교, 일본인 설립학교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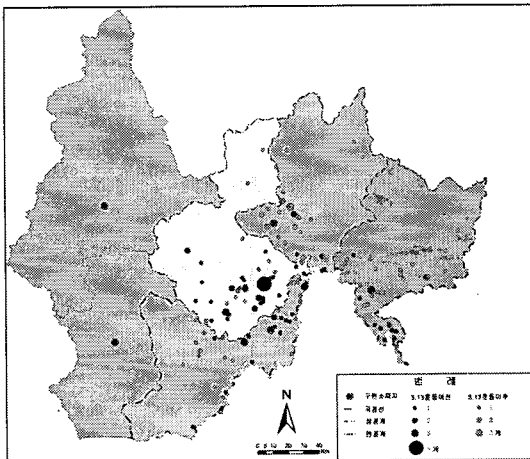


그림 8. 북간도 지역 중국인 설립학교 분포도

집·정리한 후, 전문가의 자문, 각 지역의 지명지, 고지도와 현대 지도 등을 이용하여, 9.18 사변 이전 시기 여러 계열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깊이를 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9.18사변 이전 시기를 3.13운동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학교의 분포는 한인촌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민족학교가 설립된 한인촌은 3.13운동 이전에는 용정촌을 중심으로 한 내륙의 평야지역에 주로 분포되었으나, 3.13운동 이후에는 점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해발고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3.13운동 이전에는 해발 500m 이하의 저지대 평원에 집중하였지만 3.13운동 이후에는 500m 이상의 지역에 확대되었다. 이는 한민족 항일독립운동의 활동범위가 일제의 통치력이 약한 외곽지역, 즉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천유역과 민족학교의 분포에 있어서는 3.13운동 이전시기에 민족학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유역은 해란강 유역이었고 다음으로는 두만강본류 유역이었다. 3.13운동 이후에는 해란강 유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두 번째로 많은 유역은 부르하통하 유역으로 바뀌었다.

2. 교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간도지역에서는 3.13운동 이전에는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한 학교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약간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민족학교의 분포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3. 북간도지역에서 한인에 의한 민족학교 설립은 두 개의 절정기를 보인다. 즉 3.13운동 이전인 1915년과 3.13운동 이후인 1920년대 초이다. 첫 번째 고봉기는 중국과 일본의 한인 교육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 번째는 3.13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에 대항한 한인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인과 중국인 설립학교와 민족학교와의 관계는 먼저 민족학교와 일본인 설립학교의 분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친일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한인 분포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거나 한인들이 설립한 서당이나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민족학교와 중국인 설립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3.13운동 이전에 북간도지역에서의 민족학교와 중국인 설립학교의 분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3.13운동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3.13운동 이후 중국은 일본의 세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한인 교육에 있어 일본과의 모순이 더해져서 한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 왕청현과 훈춘현에 더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13운동 이전 일본인 설립학교는 여러 계열 학교 중 간선도로와 가장 근접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제가 초기에 용정, 연길, 두도구, 훈춘과 같은 주요한 도시들에 영사관과 영사분관과 같은 통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일본인 설립 학교도 주로 이들 도시에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13운동 이후에는 도로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제의 세력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학교를 입지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중국인 설립학교도 민족학교나 일본인 설립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북간도지역에서의 항일민족교육운동은 당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지리학적 차원에서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역사학과 사회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교육과 보존적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리학적 시각에서 항일독립운동에 관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역사적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지리학과 역사학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면 더욱 높은 차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

- 1)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931년에 발생한 9.18사변 이전인 만큼, 지역을 칭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기 위하여 당시에 불리던 북간도를 그대로 사

- 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변지역이라고 지칭하였다.
- 2) 당시 북간도지역에 설립된 한인관련 교육기관의 유형 및 종류의 구분은 설립주체나 경영자 또는 학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2000, pp.194~195를 참조할 것. 그 중 항일성격의 학교에는 독립운동가 및 순 민간인으로서의 망명인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기독교인이 세운 종교계통의 학교가 포함된다(김성준, 3.1운동 이전 북간도의 민족교육,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p.47). 본 연구에서는 항일성격을 가진 학교를 민족학교라고 지칭하였다.
 - 3) 중국인 설립학교에는 중국 측에서 중국인과 한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포함되며, 일본인 설립학교에는 일본 측에서 북간도 지역에 설립한 조선총독부 보조 학교, 조선총독부 직영학교, 조선인민회 지원학교 등이 포함된다.
 - 4) 1895년 청조는 천진(天津)의 소참(小站)에서 신건육군(新建陸軍)을 조직했고 그 훈련을 원세개에게 맡겼다. 1901년 원세개가 북양대신이 되면서 신건육군을 북양군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건육군은 1905년 6진으로 확대 개편되어 북양군별집단을 형성하였다. 북양군은 원세개의 정치적 자산이나 다름없었다. 원세개가 죽고 나서 국민혁명군이 북벌할 때(1928년)까지 이들이 북경정부를 지배함으로써 북양정부라고 칭하게 되었다.
 - 5) 반일민족교육운동과 관련된 학교는 연구물과 자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보이고 있다.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자는 여러 연구물과 자료들에서 소개된 한인 사립학교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들을 수집·정리하였다. 여기에는 연길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이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 누락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 6) 당시 북간도지역에는 천도경편철도(로투구-개산툰)와 국자가지선(조양천-연길) 두 갈래 뿐이었으며 총 길이는 111km이었다(전송림, 1992). 이 철도들은 주요 도로와 병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완충구 분석에 있어 철도와 도로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 7) GIS 연산에 의해 정의되는 요소의 주위 또는 각 측면의 구역(운하, 특정구역 등). Buffer Zone이라고도 하며, 점·선·면의 지리사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포함되는 지역, 다각형 형태를 취한다.
 - 8) 일본은 「21개 조항」이 체결되면서 만주의 한인을 일본신민으로 간주하고 토지상조권 및 치외법권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21개 조항」은 일본인에게만 적용되고 한인에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더욱이 간도는 기존의 「간도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주신, 2000. 73~74.).

문헌

권혁수, 1993, 1920~30년대의 동북지방 조선족 농

- 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명지사학, 5, 95-107.
- 김석주, 2004,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보, 1990, 중국동북지역의 초기 민족해방운동, 역사비평사.
- 김성준, 1969, 3.1운동 이전 북간도의 민족교육,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문집, 동아일보사.
- 김철수, 2001, 연변항일사적지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김춘선, 1998, '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태국, 2001,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리정문, 1985, 20세기 초 조선족의 사립학교 교육, 현룡순 외 2인 편저, 조선족백년사화, 1, 료녕인민출판사.
- 박문일, 1993, 동북조선거류민들의 사립교육운동과 그 역사적 역할(1906~1919 기간), 徐紘一·東巖 편저, 간도사신론(상), 우리들의 편지사.
-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 박창욱, 1991, 조선족의 중국 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79-197.
- 박혜란, 1994, 구술사를 통해 본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여성학논집, 11, 11-56.
- 손춘일, 1998, 일제의 재만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송우혜, 1995, 명동마을이야기, 해외한민족연구소, 한민족공영체, 3, 186-205.
- 사료편찬위원회, 2001,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①, 연변교육출판사, 2001.
- 辛珠柏, 1993,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1), 高麗書林.
- _____, 1999,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 심혜숙, 1992, 조선족의 연변 이주와 그 분포특성에 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4, 321-331.
- _____, 1994, 중국 조선족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교출판사·서운대학교출판부.
- 연변대학교교육학심리학심리학연구소·연변민족교육연구소, 1987, 연변조선족교육사, 연변인민출판사.
- 윤병석,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이은숙, 1999,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

- 민의 공간이미지, 대한지리학회지, 34(4), 419-434.
- 이현정, 2001, 조선족의 중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임영서, 1993, 1910~20년대 간도한인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민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운, 2004, 만주지역 한인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식생활과 보건위생, 한국근현대사연구, 28, 78-112.
- 전승립, 1991, 연변경제지리, 연변인민출판사.
- 전신자, 2001, 만주사변 전 민족해방투쟁에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의식변화, 국학자료원.
- 조선족약사편찬조, 1986, 조선족약사, 연변인민출판사.
- 중국조선족교육사편찬조편, 1991, 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 천경화, 1984, 對滿移住 韓國人의 背景과 在滿韓國人 社會形成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대학원논문집, 제4집, 19-44.
- _____, 1988, 일제하 재만 한국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홍빈, 1996, 반일민족독립운동에서 연변지구가 일 였던 역사적인 역할, 동북아연구, 1, 27-42.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1997,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 한주성, 1990, 인간과 환경, 교학연구사,
- 현규환, 1967, 한국유이민사(上·下卷), 어문각.
- 間島省地圖, 1:2,000,000.
- 間島地圖(출처불명).
- 高永一, 2002, 中國朝鮮民族史研究, 學研文化社.
- 金春善, 2001,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吉林省延吉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1994, 延吉市志, 新華出版社.
- 吉林省地圖應用開發中心編, 2006, 延邊朝鮮族自治州行政區劃圖.
- 吉林省測繪技術開發公司編, 2004, 白山市全圖(交通旅遊版).
- _____, 2006, 通化市行政區劃圖.
-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延邊地域 一部 1:50,000地形圖, 1934.
- 圖們市人民政府編, 1985, 圖們市地名志.
- 敦化縣人民政府編, 1985, 敦化縣地名志.
- 滿洲國總圖, 1:1,700,000.
- 鳴田道彌, 1935, 滿洲教育史, 文教社.
- 朴文一, 1991, 1906~1919年間中國東北朝鮮族人民的私立學校教育運動及其歷史作用, 延邊大學民族研究所編, 朝鮮族研究論叢(3), 延邊人民出版社.
- 桑畑忍, 1929, 在滿朝鮮人と教育問題, 社團法人中日文化協會.
- 孫春日, 1989, 試論延邊朝鮮族聚集區的形成, 朝鮮族研究論叢, 第2集, 延邊大學出版社.
- 安圖縣人民政府編, 1989, 安圖縣地名志, 연변인민출판사.
- 延吉市人民政府編, 1986, 延吉市地名志.
- 延邊朝鮮族自治州農業區劃辦公室·氣象局編, 1983, 延邊地區各大隊氣候(積溫)資料匯編.
- 延邊朝鮮族自治州地名委員會編, 1985, 延邊朝鮮族自治州地名錄.
- 延邊州統計局編, 2005, 延邊統計年鑒2005, 吉林人民出版社.
- 延邊地區 1:200,000 地形圖, 1960年代.
- 延邊地區 1:50,000 地形圖, 1960年代.
- 延邊統計局編, 2007, 延邊統計年鑒 2007, 吉林人民出版社.
- 汪清縣人民政府編, 1985, 汪清縣地名志.
- 汪清縣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2, 汪清縣志(1909~1985).
- 龍井縣人民政府編, 1985, 龍井縣地名志.
- 龍井縣地方志編纂委員會編, 1989, 龍井縣志,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 李鳳熙, 二十世紀二十年代馬列主義在延邊的傳播特點, 韓俊光·金元石 主編, 中國朝鮮族歷史研究論叢(2),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2.
- 齊尙紅·王冰潔·武作書, 2007, 農業生產與溫度的關係, 河南科技學院學報, 35(4), 20-23.
- 琿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0, 琿春市志, 吉林人民出版社.
- 琿春縣人民政府編, 1989, 琿春縣地名志.
- 和龍縣人民政府編, 1984, 和龍縣地名志.

(접수: 2009.8.19, 수정: 2009.9.21, 채택: 2009.10.16)